


보 810 독자 %

속변과 번비를 획기적으로 동시에 해결!

인티케어

가까운 약국이나 선물센터에 있습니다.
(남가주 100여개 업소에서 절찬리 판매중)



중 앙

• 전화: (213)368-2500 • 팩스: (213)389-8384 • 제8147호

THE KOREA C

10/1/1998

한인 하루 3쌍 꼴 '이혼'

올들어만 무려 693쌍이 '남남' 선언

민사법원 조사, 가정폭력·외도등 주요 원인

한인 가정이 깨지고 있다. 갈라서는 부부가 날로 급증하는 등 한인가정의 이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보가 LA카운티 민사법원에 접수된 이혼사례중 한인 성을 따르며 추려 '한인가정의 이혼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들어 9월21일 현재까지 한인 이혼사례는 총 693건에 달해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갈라서는 한인부부는 1,000쌍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관계기사 3면>

이는 하루에 한인부부 3쌍 이상이 이혼하는 셈이어서 한인가정의 심각한 이혼실태를 잘 말해준다.

특히 최근에는 이혼수속을 보다 쉽게 밟을 수 있는 네바다주로 건너가 이혼하는 한인부부도 꽤 많은 실정이다.

결혼을 한 후 다시 남남이 된

한인부부는 96년 832쌍, 97년 748쌍을 기록했었다.

신혜원 가정법전문 변호사는 "하루에도 3~4명이 이혼문제를 상담해 오고 있으며 평균 하루에 1쌍이 이혼소송을 하고 많을 때는 하루 3~4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한인가정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5~45세의 중년층으로 남편의 도박, 알콜중독, 가정폭력, 그리고 외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타운내 또 다른 변호사는 중년의 잦은 이혼빈도에 대해 "한인 1세대들도 점차 미국식 사고방식에 익숙해지고 경제적 기반이 잡혀가면서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이제는 중년부인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잘' 살아보자고 마음을 바꾸는 경향이 짙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결혼한지 1~2년 안에 헤어지는 20대 신세대 부부들도 날로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한인 여성보호센터의 강영생 목사는 "IMF사태 이후 LA로 무작정 건너온 본국 여성들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는 기혼자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 그로 인해 파경을 맞는 가정도 눈에 띄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 가정문제 전문가들은 가족의 경우 부부가 서로 합의없이 한쪽측의 의사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 무과실 이혼제(No-fault Divorce)로 인해 이혼을 쉽게 하고 있는 것도 이혼을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개인주의 팽창으로 저마다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외면하는 요즘 나 하나 보다 '우리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추석을 맞아 본 교자상·다

금강산 관광 "물건너 갔다"

현대-북측 실무협상 중단...10월 유람선 첫 취항 포기

"IMI
본국송
오는 5일 추
오르 돌아나선